

Yesterday with the dawn  
I left through the typhoons  
Over the sea of Joseon

And the sea of Joseon  
gave me the shell of a mussel  
even bigger than the hull of my boat.

And the sea of Joseon  
through the waves and scum, yelled :  
« bring it to the Belgians »

내일 새벽과 함께  
나는 태풍을" 지나 떠날 것이다.  
조선의 바다위로

그리고 조선의 바다는  
내 보트의 선체보다 훨씬 큰  
홍합 껍질을 나에게 주었다.

그리고 조선의 바다는  
파도와 거품을 통해, 소리 쳤다.  
"벨기에에 이것을 가지고 가